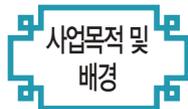


‘지역이 학교다’ –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조직’ – YESDO

“설문조사 결과 원주지역 청소년들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이들의 서식지를 확대하고,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원주 인근지역 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조사 및 인식증진」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360, 101호

전 화 033-747-3649

팩 스 033-746-8750

이메일 agenda21@empal.com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은 숙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좌절과 갈등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불만족과 열등감 속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원주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식의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



“생태통로에 대한 꾸준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동물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고,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원주시내 생태통로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탐구」

“결과적으로 본 연구팀은 립 제품의 화학성분들이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문단에 보고된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화학성분과 화학성분의 역할, 부작용을 알려 그들의 화장품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립 제품 성분과 부작용」

위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에서 원주지역 청소년들이 발표한 논문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자, 지역사회의 이슈에 관한 목소리다. 포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주제



로 설정해 연구·조사하고 이후 논문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돕는 '멘토'는 온전히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이 교육 현장이 되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자원하는 청소년포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 청소년포럼은 지역의 청소년에게 지역사회가 또 하나의 열린 학교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사회'다. 경제적 성장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지역은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행정, 크고 작은 기업, 전문가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 청소년포럼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다.

흔히 청소년을 일컬어 '미래의 주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10년, 20년 뒤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지속가능발전 청소년포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품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시각에서 그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가치를 담는다.

형평성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¹⁾의 지향점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가치는 단연 ‘교육 형평성’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같은 또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 입시 위주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교 후에는 학원이나 과외, 독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학업 수준에 따라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다르고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 할 수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 역시 양질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형평성’이라는 키워드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교육 불평등 요소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이 포럼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업수준이나 성별,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원주지역의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다.

‘교육 형평성’은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의 첫 번째 가치이자 키워드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4번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1) YESDO는 1기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을 진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칭공모전에서 선정된 명칭이다. Youth Endeavor Sustainability Development Organization 단어의 약자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조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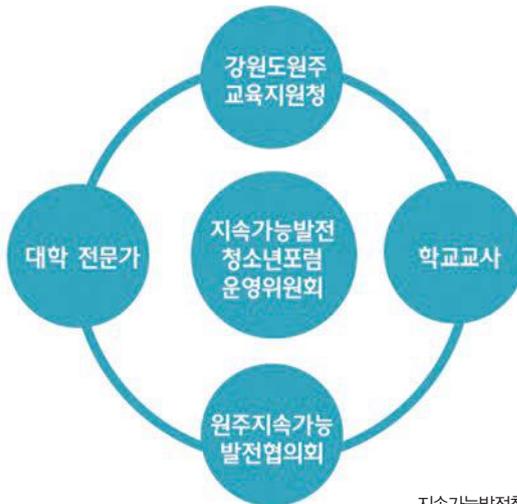
Goal 4. Ensure inclusive and e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 증진

공동체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지역 교육 공동체’이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학교이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학교만이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에 대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같은 정규교육 기관 뿐 만 아니라 크고 작은 대학,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민과 관의 연구기관(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조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 사회, 문화, 경제,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의 구성

환경 등 지역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적인 부문을 다뤘은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의 이런 인프라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인적·물적 네트워크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기반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의 기회와 심화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작할 수 있었다. 이는 원주지역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청소년

세 번째 키워드는 '청소년'이다.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에서 청소년을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위한 주요그룹으로 주목하였다. 지역사회부터 국가와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한국의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활동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때문에 종합적 사고와 판단력을 길러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교육 목표에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증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은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경제, 사회문화, 환경, 문학 등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실험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멘토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연구방법 배우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멘토와 함께 나누게 된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전문적 지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고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관찰하기 시작한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마지막 키워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바로 ESD이다. ‘Think global, Act Local’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속가능발전 실천력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문구로 많이 사용된 슬로건이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은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끌어가는 교육의 한 축으로 작용해야만 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전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교육공동체가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브룬트란트 보고서로부터 출발한 ‘우리 공동의 미래’는 한 발 더 앞서 다가올 것이라 기대한다.

청소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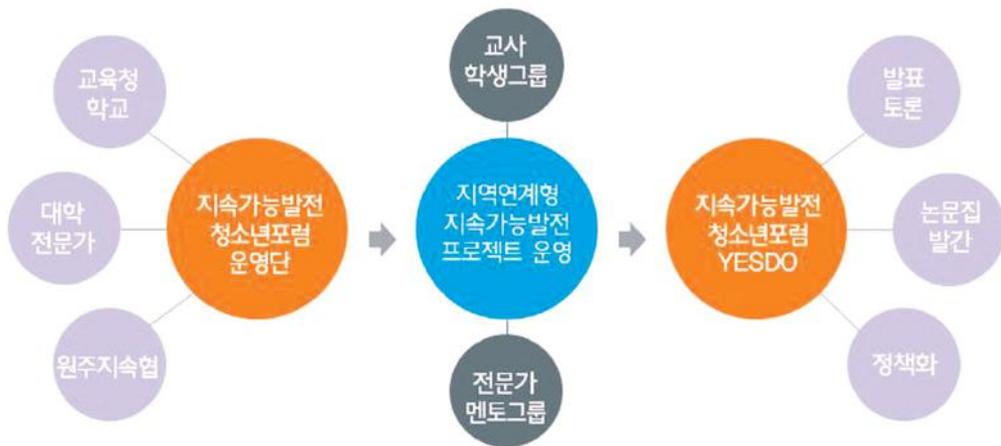
자발성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1기를 운영하였다. 포럼은 단순히 모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다. 3~5명으로 학생이 지도교사와 함께

포럼에 참여하여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약 4~5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한다.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운영위원회는 가장 먼저 참여 학생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교육하고 학생들 스스로 선정한 연구주제와 연계성이 있는 전문가를 멘토로 섭외하여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논문을 자주 접하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멘토는 논문작성법, 문헌자료 조사나 설문조사와 같은 연구방법론을 지도한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 참여해주는 멘토들은 자원봉사로 학생들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류를 하며 연구주제에 따라 때로는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교감을 나누기도 한다. 연구결과는 소논문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표 이후에도 멘토나 상호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 작업 후 제출된 논문을 엮어 논문집을 발행한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추진방법]



다양성

1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로는 환경분야 “멸종위기 종 인식증진방안”은 물론 복지분야인 “원주 관내 노인요양시설 영양보호사 직무만족도 현황”, 교육 분야인 “원주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식의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 등 다양하였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1기 논문 주제

분야	주제	학교
사회	원주 특산품인 북송아와 황골엿을 이용한 상품개발	강원과학고등학교
	원주시 동남아시아 결혼 이주민 가정의 복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상지여자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식의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	북원여자고등학교
	원주를 통해 알아보는 독도와 한일관계	치악고등학교
	원주 관내 노인요양시설 영양보호사 직무만족도 수준에 대한 연구	치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립 제품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의 권고	치악고등학교
에너지	국내 바이오가스 현황 조사 및 효율 증진 방안 탐구	강원과학고등학교
	대기 중 수증기 포집을 통한 물 부족 해결의 가능성 탐구	북원여자고등학교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린 시티(Green-City) 사업을 위한 친환경 가로등 개발	강원과학고등학교
	원주시 SRF 시설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조사	치악고등학교
	교내 인간동력 활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치악고등학교
환경	원주시내 생태통로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탐구	강원과학고등학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원주시가 기울인, 기울여야하는 환경적인 노력은 무엇인가?	원주여자고등학교
	친환경 한지의 효과 연구	상지여자중학교
	원주인근지역 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실태조사 및 인식증진 방안	강원과학고등학교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와 줄이기 위한 방안	원주고등학교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 세부운영내용

- ① 참여자 모집
 - 관내 중·고등학생이라면 학업수준, 성별, 학년 등 어떤 것에도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한 공문, 협의회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SNS 홍보물 게재 등을 진행
 - 팀별 3~5인 구성, 지도교사 1명, 참가팀 제한 없음
- ② 주제선정
 -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문학 등 주제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주제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선정하도록 함
- ③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 오리엔테이션
 -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취지 및 내용 공유
 - 팀별 선정 주제 및 주제 선정이유, 연구 추진 계획 발표
 - 그룹 토의 및 1차 멘토링
 - 팀별 멘토 매칭 : 관련 주제 전문가(대학교수,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관 관계자 등)
- ④ 지속가능발전교육 특강
 -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 연구방법론
 - 논문작성법
- ⑤ 연구과제진행
 - 팀별 연구 과제 진행
 - 멘토링 : 참여팀과 멘토의 직접 연결을 통해 과제 진행 중 온·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 운영
 - 현장조사활동, 설문조사활동, 문헌연구 등
 - 연구일지 작성
- ⑥ 지도교사 간담회
 - 진행상황 점검
 -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 ⑦ ESD캠프
 -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창의적 소통 캠프 프로그램 운영
- ⑧ 중간발표
 - 팀별 연구과제 진행상황 공유
 - 연구과제 수정·보완
 - 전문가 멘토링
- ⑨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개최
 - 팀별 연구과제 발표
 - 분야별 상호토론
 - 전문가 평가 및 멘토링
- ⑩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논문집 제작
 - 논문집 제작 및 배포
- ⑪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평가
 -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진행과정, 연구결과,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평가
 -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운영위원회
- ⑫ 지방자치단체(원주시) 정책제안
 -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 연구 결과 중 원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정책화하여 제안



포럼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를 연구하기도 했고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속에 자신들의 시각을 담아내기도 했다. 물론 논문으로써 평가한다면 결코 수준 높은 논문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애시당초 우리는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논문을 제출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지역을 바라보고 문제의식 혹은 이야기꺼리를 찾아내 친구, 교사 그리고 멘토와 고민을 나누기 시작하길 원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1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청소년포럼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1기 프로그램에는 30개 팀이 참여하여 22개 팀이 프로젝트 결과 발표 및 상호토론에 참여, 최종 논문 16개 팀이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16개 기관·단체에서 18명의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주었다. 2016년 3월 시작한 2기는 31개 팀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최종 제출된 연구내용 중 원주지역에 적용할 만한 연구 내용을 원주시의 주무부서, 각계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를 통해 공식적인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이 과정에도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평가와 과제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으며, 그들에게겐 미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스스로 편견 버리는 계기 됐죠.”

유하랑(북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15년 같은 반 친구들 4

명과 함께 팀을 구성했다. 팀원들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으로 거부감 없이 참여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원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식 차이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주제로 연구했고, 1기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팀원들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스스로의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원주투데이 신문사 인터뷰 내용, 2016년 6월 13일]

▷유하량: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해보려고 고민하던 중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을 주제로 정하게 됐다. 특성화고교에 대한 편견과 좋지 않은 인식이 왜 생기게 됐는지 의문이 들어 주제로 정하게 됐다. 올해는 다른 친구들과 팀을 이루게 됐는데 지난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게 된 '지역사회 고졸취업'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윤지아: 포럼을 통해 연구하기 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불량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들과 선생님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신진경: 논문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 봤는데 논문 쓰기에 대한 절차와 조사방법 등을 배워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지역사회에도 학생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유서영: 고등학생 때 논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전교생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배우긴 어려운데 좋은 경험이 됐다. 학교 수업 등 교과를 소화하느라 여가 시간이 부족해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이 조사할 부분과 함께 진행할 부분을 조율하면서 연구를 마칠 수 있었다.

▷마지우: 원주에 살지만 원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역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결속력을 갖게 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를 도와주신 교수님, 장학사님 등 전문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청소년포럼을 통해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됐다. 우리가 연구한 주제처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배운 점도 좋았다.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올해 2기 청소년포럼에도 참여한 유하량 학생은 진학을 위한 학업 문제로 고민 끝에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생각했던 획일화되고 학교 공부에만 매진하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중·고등학생 아니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였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창의적인 대안도 제시하였다.

“지역의 어른이라면 해야 할 일”

김남형 (사)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은 제1기 멘토 그룹 가운데 청소년포럼 참가자들이 가장 선호한 멘토로 평가됐다. 1기 청소년포럼에서 원주지역 멸종위기종 및 생태통로, 원주천에 대해 연구한 3개 팀의 멘토로 활동했고, 올해 2기 학생들과도 환경 분야의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기 청소년포럼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활용해 팀별로 3차례 가량 현장 답사를 함께 다니며 지도하고, 연구를 도왔다. 김남형 연구원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때 사회적 의제, 갈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포럼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의 문제를 꼬집어내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은 결국 문제해결 능력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유럽연합포럼에는 전세계 60개국에서 4,000여명의 학생들이

1주일 동안 16개 분야의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 알프바흐에 모인다. 여기에서는 보건, 기술, 정치, 경제, 건축, 문화, 금융, 법률 등의 논제가 발표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유럽의 정책으로 반영된다. 그런데 이 유럽포럼은 티롤의 한 작은 산악마을 알프바흐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작은 포럼에서 유래하고 있다.

우리 원주 지역에도 복지, 환경, 교통, 도시, 산림,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참여한다면 또 하나의 열린 학교인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역이란 학교에서 문제인식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본다면 우리 사회는 틀림없이 다양성이 확대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 될 것이다. 선진국가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2016년 올해 2기를 모집한 결과 지난 1기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 지역이 학교다.”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공식프로젝트에 등록이 되었다. 즉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우리 원주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그래서 그들의 진로와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겨울, 무척이나 추웠던 1월, 우리의 청소년들과 논문작성을 위하여 현장을 다니면서 나는 이야기는 원주의 희망이었으며 그들에게는 미래였다. 지난 추운겨울을 참으로 따뜻하게 해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